

경기 반월중학교 국어 교사 최지혜

상실과 이별 속에서 성장하는 일

『선재의 노래』
공선옥 소설





책 소개

열세 살 선재는 시골 마을인 무수골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곁을 떠났다. 그리하여 선재에게 가족은 할머니뿐이다. 누구보다 선재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선재를 키운다. 여름 방학의 첫날, 선재는 시장에 가자는 할머니에게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다. 할머니는 콩나물시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같이 시장에 가고, 선재는 볶음김치와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아침밥을 먹는다. 밥을 먹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선재에게 마을 이장이 찾아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한다. 할머니가 장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지만 할머니를 향한 선재의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집과 마을에 남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울기도 하고, 곁에 없는 할머니를 원망도 하고, 할머니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그런 선재를 돌봐 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다. 국자 할머니, 염소 할아버지, 담임 선생님, 이장님, 상필이와 상필이 할머니……. 이들은 선재를 찾아와 밥을 먹이고 곁을 지키며 위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로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대해 듣는다. 상필이가 자기 할머니 일을 돋고 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선재의 할머니가 커피 한 잔을 채 다 드시지 못하고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며 우는 상필이를 돌려보내고 선재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밥이나 먹고 있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선재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한다. 할머니의 유골함을 들고서.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자장가처럼 했던 말에서 ‘절골’이라는 곳을 기억해 내고 목적지로 삼는다. 절골까지 가는 동안 고물 장수, 오토바이 아저씨 등과 소동을 벌이던 선재는 ‘그거 할아버지’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절골의 미륵사라는 절에 도착한다. 할머니의 유언을 이미 알고 계신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삼 주간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동안 선재는 보살님으로부터 정성 어린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다. 할머니를 보내 드리며 선재는 조금씩 성장하고, 주위의 어른들은 서로 선재를 키우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인다. 어른들이 생탈전을 벌이는 사이 선재는 팽나무에 올라 콧노래를 부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노래를 부르는 선재의 모습을 그거 할아버지가 사진기에 담는다.

『선재의 노래』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에 직면한 청소년이 분노와 우울을 거쳐 수용에 이르는 애도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은 슬픔을 처리 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할머니와의 추억에 사로잡힌 선재의 여름날을 아프게 그리는 것으로 시작 하여 선재가 주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일종의 모험을 경험하며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할머니와 이별하며 떠났던 선재의 노래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함께 겪으며 애도를 통한 성장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수업의 초점

1. 인물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며 읽기

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선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소설은 선재를 둘러싼 세계가 선재에게 던지는 시련과 시험(할머니의 죽음, 절골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대하는 선재의 내면이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채 지내던 선재가 절골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세상과 마주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안 선재의 내면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살펴야 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된 경험을 떠올리거나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며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토대로 읽기를 시작한다. 선재가 겪은 일처럼 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은 상실에 대한 반응을 상상함으로써 소설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자신이 떠올리고 예상한 생각과 감정을 선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활동을 포함한 독서 일지를 작성한다.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선재에 대한 공감 반응을 모둠원들과 나누게 되고, 이를 통해 선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선재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의 구조적 특징 파악하기

애도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선재의 모습을 깊게 다룬 소설인 만큼 학생들은 선재가 겪은 내면의 성장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은 안전한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과 좌절, 선한 이웃들의 보살핌, 세상에 맞서는 의지와 모험, 상실을 극복하는 애도 과정을 선재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소설을 끝까지 읽은 뒤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며 성장 소설로서 이 작품이 지니는 특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자신과 친구들의 삶에 대입하여 소설에서 다루지 않은 성장의 조건 및 요소를 탐색하며 문학적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치환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다.

3.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비고
1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에서 느낀 감정 공유하기 소중한 대상을 잃었던 경험 이야기하기	
2~6	읽기 중 활동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7	읽기 후 활동	인물에 대한 공감 반응 나누기	
8		소설의 구조적 특징 파악하기	
9		‘성장’에 필요한 요소 탐구하기	
10	평가	구술 평가	
11	추가 활동	선재에게 들려주고픈 노래 소개하기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감정 공유하기, 경험 이야기하기

활동 1 제목과 표지에서 느낀 감정 공유하기

1. 제목과 표지를 보고 느낀 감정을 형용사 3개로 적어 보자.

—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2. 선택한 형용사 3개 중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골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어두운 빛깔의 풀숲, 풀숲에 가려진 인물의 몸과 얼굴에 주목하도록 안내한다.

활동 2 소중한 대상을 잃었던 경험 이야기하기

1. 소중한 대상을 잃었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자. 경험이 없다면 소중한 대상이 사라진 상황을 가정해도 좋다.

— 선재가 겪는 할머니와의 이별에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이다.

—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개인사의 노출을 끼리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글 쓴 사람 칸에는 낙네임을 쓰도록 한다.

— 활동지는 교사가 일괄 수거한 뒤 무작위로 뽑은 사연을 읽어 주거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실에 게시한다.

글 쓴 사람(낙네임)	
내가 잃은 소중한 대상	
그 대상이 내게 소중했던 이유	
소중한 대상을 잃게 된 이유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의 감정	

(예시)

글 쓴 사람(닉네임)	젤리곰
내가 잃은 소중한 대상	토끼 인형(애착 인형)
그 대상이 내게 소중했던 이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처음으로 선물해 주신 인형이었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잘 때도 놀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안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고, 뺨래를 하면 마르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때가 꼬질꼬질하도록 안고 다녔다.
소중한 대상을 잃게 된 이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하던 중에 잃어버렸다.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의 감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곁을 지켜 주던 친구 하나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아버지의 선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 읽기 중 활동

| 2차시~6차시 |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활동 1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 해당 차시에 읽은 내용과 읽으며 한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수업 종료 15분 전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읽은 부분까지 리벨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도록 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일시	년 월 일 교시
오늘 읽은 부분	()면 ()번째 줄 ~ ()면 ()번째 줄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인상적인 부분) 이유)
선재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	공감되는 부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읽기 후 활동

| 7차시~9차시 | 파악하기, 탐구하기

활동 1 인물에 대한 공감 반응 나누기

- 독서 일지의 ‘선재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에서 대표로 소개할 내용을 정리하는 개인 활동을 한다.
- 개인 활동 후 모둠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 모둠 활동 후에는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깨닫게 된 것(혹은 소감)을 작성하도록 한다.

선재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	
선재의 말과 행동에서 공감하기 어려웠던 부분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깨닫게 된 것(혹은 소감)	

(예시)

선재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	염소 할아버지께서 주신 찰밥을 먹으려다가 할머니 유골함 앞에 밥을 놓아 주는 선재의 행동에 공감이 갔다. 할머니가 주신 밥을 먹으며 자라 온 선재이기에 돌아가신 할머니께 밥을 차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선재가 가진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느껴진 장면이어서 특히 인상 깊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풍습도 떠올라서 더욱 공감이 되었다.
선재의 말과 행동에서 공감하기 어려웠던 부분	상한 사과를 줬던 슈퍼 아줌마에게서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은 뒤에 “사과가 생각나서 화가 났는데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받아먹은 게 또 화가 난다고오.”라고 말한 것이 공감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슈퍼 아줌마가 사과를 준 것이나 아이스크림을 준 것 모두 호의에서 나온 행동 같았고, 할머니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선재가 그토록 열을 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할머니는 없고 할머니 냄새만 확 끼쳐 왔다고 생각하며 냄새를 향해 “할 머 니 이!”라고 외친 장면을 선택한 친구의 의견이 인상 깊었다. 기르는 강아지를 학교에서 보고 싶을 때 강아지 냄새를 맡은 적이 있다는 친구의 설명이 생생하고 재밌었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어서 공감이 잘 되었다.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깨닫게 된 것(혹은 소감)	내가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선재가 처한 상황(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상한 사과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납득이 되었다. 같은 장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누니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

(활동2)**소설의 구조적 특징 파악하기**

- 작품이 지닌 구조적 특징을 토대로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 각 장의 사건을 요약하고 장 제목의 의미를 추론하는 개인 활동을 한 후 모둠 활동을 통해 사건들이 선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피드백한다.

개인 활동지

1. 할머니 생각	핵심 사건) 장 제목의 의미)
2. 사람들	핵심 사건) 장 제목의 의미)
3. 나는 열세 살이다	핵심 사건) 장 제목의 의미)
4. 할머니, 안녕	핵심 사건) 장 제목의 의미)

모둠 활동지

‘1. 할머니 생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2. 사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3. 나는 열세 살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4. 할머니, 안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예시)

개인 활동지

1. 할머니 생각	핵심 사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은 선재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름 방학을 보낸다. 장 제목의 의미) 선재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2. 사람들	핵심 사건) 홀로 지내는 선재에게 이웃들이 찾아와 밥을 먹이고 곁을 지켜 준다. 장 제목의 의미) 할머니는 떠났지만 선재에게는 곁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3. 나는 열세 살이다	핵심 사건) 선재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골함을 들고 절골을 향해 떠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모험을 한다. 장 제목의 의미) 열세 살 선재는 아직 어리지만 홀로서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는 선재의 포부가 담긴 제목이다.
4. 할머니, 안녕	핵심 사건) 절골의 미륵사에 도착한 선재가 삼 주간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돌아온 콧노래'를 부른다. 장 제목의 의미) 할머니 생각을 하며 슬픔에 잠겨 있던 선재가 진정한 의미의 작별 인사를 건네며 성장한 모습을 담고 있다.

모둠 활동지

'1. 할머니 생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선재는 할머니와의 이별이라는 시련을 통해 성장이 필요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2. 사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한 인간이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장에 등장하는 여러 어른과 친구는 선재가 시련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다.
'3. 나는 열세 살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선재는 절골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모험을 하면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경험을 한다.
'4. 할머니, 안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	성장에는 소중한 존재 또는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며 홀로 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재는 미륵사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와 작별하고 미성숙한 자신과도 이별하며 한 단계 성숙한 존재로 성장한다.

(활동 3) '성장'에 필요한 요소 탐구하기

- 소설 읽기의 경험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 개인 활동 후 모둠 활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 활동에서 대표 의견을 선정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와 공유한다.

『선재의 노래』에서 확인한 성장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소설에서 확인한 것 외에 다른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시)

『선재의 노래』에서 확인한 성장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4. 할머니, 안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이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은 세상에 훌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훌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오래도록 지탱한, 그래서 자신이 의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와 이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어 자신의 과거와 이별할 때 혼들림 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 확인한 것 외에 다른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양질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성장에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소설에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등장하여 선재의 성장을 도와주지만, 선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장면은 없었다. 여름 방학이 끝난 선재가 학교와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진심으로 바란다.

| 10차시 | 평가하기

제시한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차시에는 구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을 공지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두 가지 질문에 각각 1분 내외로 답변하도록 한다. 답변의 근거는 반드시 소설 안에서 찾도록 한다.

질문 목록

- 선재의 주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 그가 선재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 선재가 한 선택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 소설에는 음식과 요리에 대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이 작품이 성장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장면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자.
- 소설에서 선재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두 번 나온다. 각각의 장면에서 선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활동 1) 선재에게 들려주고픈 노래 소개하기

- 소설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인 ‘선재의 노래’를 활용한 마무리 활동이다.
- 선재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장을 축하할 수 있는 내용의 노래를 찾아 소개하도록 안내한다.
-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재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읊미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다.

- 선재에게 선물하고픈 노래(제목/가수):
- 가장 중요한 가사:
- 고른 이유:

(예시)

- 선재에게 선물하고픈 노래(제목/가수): 「다시 만난 세계」 / 소녀시대
- 가장 중요한 가사: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쪽아가
- 고른 이유: 할머니와 이별하고 성장의 과정을 거친 선재에게 소설 속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과 후의 세계는 다른 곳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선재에게 선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선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막막해 보일 때가 오더라도 빛을 향해 걷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엮어 읽기

『페인트』 이희영 장편소설 (창비 2018)

『페인트』는 『선재의 노래』와 반대되는 지점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페인트』의 세계에서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13세 이후 부모를 선택하는 면접을 보게 된다. 보호자가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성장의 과정을 다루는 『선재의 노래』와 자신의 의지로 보호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과정을 다루는 『페인트』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소설로 읽힌다. 두 작품을 학생들이 비교하며 읽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작품의 배경 및 인물, 문체에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성장 소설이 담아내는 넓은 외연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소설 (다산책방 2023)

『맡겨진 소녀』는 어려운 형편에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소녀가 생활에는 여유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친척에게 맡겨지면서 시작되는 소설이다. 낯선 친척들로부터 세심하고 다정한 보살핌을 받으며 소녀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생활의 요소들과 표현해야 하는 감정들을 배워 나간다. 『선재의 노래』와 비교하면 뚜렷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말해 주지 않는 정보도 많은 편이지만, 그리하여 발생되는 서사의 여백을 독자의 경험과 감정으로 채워 나갈 수 있다. 『선재의 노래』를 통해 풍부한 감정 묘사와 굵직한 사건으로 구성된 소설을 접해 본 학생들이 『맡겨진 소녀』를 통해서는 느리지만 따뜻하게 성장해 가는 인물을 응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두 작품의 인물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성장의 의미를 재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